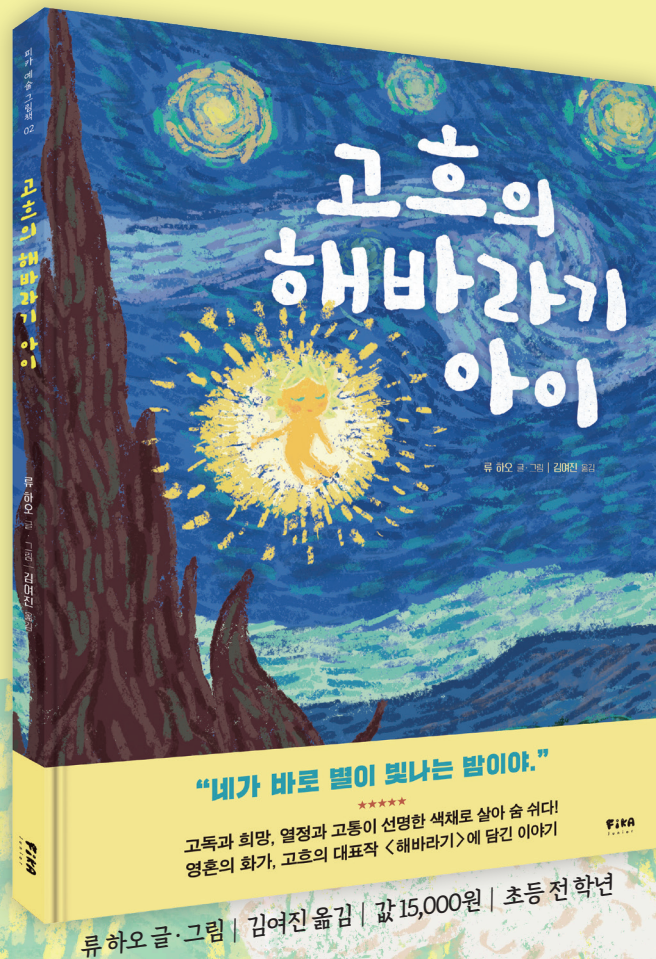


고흐의 해바라기 아이

• 독서 활동지

고독과 희망, 열정과 고통이 선명한 색채로 살아 숨 쉬다!
영혼의 화가,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에 담긴 이야기



교과 성취기준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4, 5, 6학년 미술

- ◆ 관찰과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표현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 ◆ 미술 작품을 자세히 보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 미술 작품을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지역적 배경 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할 수 있다.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고흐의 해바라기》의 매력



교실에서 종종 어린이들에게 명화에 대해 질문해 보곤 합니다. “좋아하는 화가가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단연 인기가 가장 많았던 화가는 바로 반 고흐였어요. 많은 화가 중에서도 반 고흐가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다시 한번 고흐의 그림들을 보니 답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매끄럽지 않고 거칠게 툭툭 그려진 역동적인 붓 터치와 강렬한 노란 색감이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드니까요. 류 하오 작가는 반 고흐의 그림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상상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 탄생하였지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반 고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날아서 그곳에 갔지요. 너무 이른 시간에 미술관에 도착해서일까요? 사람들이 북적일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미술관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둘러 평소 가장 좋아하던 <해바라기(Sunflowers)> 앞에 섭니다. 그림 앞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느긋한 마음으로 그림을 감상합니다. 꼬들꼬들하게 잘 말라 있는 유화 물감이 해바라기의 질감을 생생하게 잘 나타냅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도 모두 같지 않고, 제각각입니다. 이토록 노란색이 다양했다, 생각하며 코를 그림에 박을 듯 가까이 다가갑니다. 흠칫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그림에 몰두합니다.

그중, 오른쪽 아래에 유난히 눈부시게 노란 해바라기 한 송이가 자꾸만 눈길을 끕니다. 묘한 끌림이 있어 더 자세히 보려는 찰나, 그 한 송이 해바라기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놀란 눈으로 들여다보니 그건 더벅머리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꽃병에서 빠져나온 이 아이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그토록 원하던 그곳이겠지요. 바로 태양이 있는 곳ियो!

독자들은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반 고흐의 다른 그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햇살을 잡아 와 밭에다 콧속 심는 장면은 반 고흐의 어떤 그림과 닮았을까요? 바로 반 고흐의 1888년 작품, <씨 뿌리는 사람(The Sower)>입니다. 네덜란드의 ‘크뤼러 뮐러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이지요.

반 고흐의 그림은 무척 독창적이지만, 다른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반 고흐는 프랑스의 화가였던 장 프랑수아 밀레의 그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귀족의 일상을 그리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는 데 일생을 바쳤으니까요. 반 고흐는 밀레의 예술관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실제로 밀레가 그린 그림을 모사하여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밀레의 그림과 같은 구도와 제목을 가진, 반 고흐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였지요. 밀레와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The Sower)>을 비교하며 본다면 무척 흥미로울 거예요.

아이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넘실대는 장면은 이 그림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삶은 어둡고 불행한 순간이 많았지만, 평생 따스한 태양을 원하고 갈망했다는 걸 보여 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태양을 향해 한참을 헤맸지만, 태양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태양만큼이나 빛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아이를 위로 하였지요. 바로 달이었습니다. 아이는 낮을 모두 흘려보내고, 밤의 한 풍경이 됩니다. 달에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이 그림책은 해바라기였던 아이가 태양을 쫓다가, 달에 안착하게 되는 노랑고 반짝이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아이의 부드럽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고 싶어질 거고요.

김여진(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서울상신초 교사)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운영진으로 매달 그림책 애호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그림책을 번역하며 창작의 기쁨을 독자들과 나눕니다.

* 집필도서 《소녀들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해》, 《그림책 한 문장 따라 쓰기 100》, 《피땀눈물, 초등교사》,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공저), 《그림책 수업 대백과 261》(공저) 등

* 번역도서 《모네의 하나뿐인 양산》, 《독자 기르는 법》, 《집 안에 무슨 일이?》, 《나는 () 사람이예요》, 《달팽이 헨리》 등

- 인스타그램: @zorba_the_green



표지를 살펴보아요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하루 중 어느 때로 보이나요?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어떤 재료로 그렸을 것 같나요?

그림 속 주인공은 어디에 있나요?



해바라기 아이야, 나랑 같이 가 볼래?

해바라기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해바라기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 보고 싶나요? 또, 그곳에 데려갔을 때
해바라기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도 적어 보세요.



예시

장소: (예시) 반 고흐의 방 창가

아이의 마음:

(예시) 방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 같다.

그림 그리는 곳:



장소



아이의 마음



그림 그리는 곳



독서중
활동 3

그림책 장면 속 영화를 찾아보아요

《고흐의 해바라기 아이》에는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이 아끼는 반 고흐의 그림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림책 속 장면과 알맞은 영화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정답은 맨 아래에 있어요.)

책 속한 장면



고흐의 영화



정답



글 © 김여진 그림 © 류 하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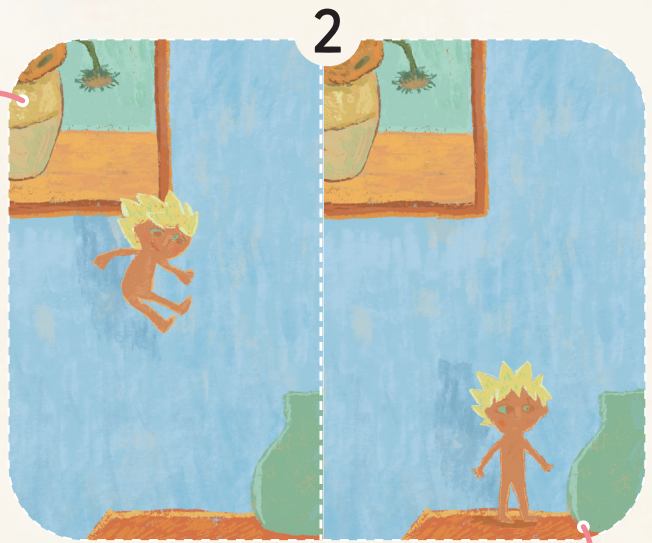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카출판사 홈페이지(<https://fikabook.io/>) > 도서목록 > 독서활동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Fika Junior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아요

해바라기 아이는 잠자코 한곳에 머물기 보다는 힘차게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해바라기 아이가 이동한 순서에 맞게 그림의 번호를 써 보세요.
(정답은 맨 아래에 있어요.)

() → () → () → ()



O, X 퀴즈를 풀어 보아요

《고흐의 해바라기 아이》는 영화 속 상상력이 넘실대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이 읽고, 아래의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동그라미 쳐 주세요. [정답은 맨 아래에 있어요.]

퀴즈1 <씨 뿌리는 사람>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O, X)

퀴즈2 반 고흐는 장 프랑소아 밀레의 작품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O, X)

퀴즈3 반 고흐는 해바라기 그림을 단 한 점만 그렸어요.

(O, X)

퀴즈4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반 고흐 미술관'이 있어요.

(O, X)

퀴즈5 반 고흐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줄곧 그림을 그렸어요.

(O, X)

